

영국 어린이책 시장은 해마다 세를 불리고 있다. 지난해 영국 출판시장 규모는 2조 3천억 원 정도. 그 가운데 어린이책은 약 14%를 차지해 3천억 원 정도 판매됐다. 물론 시장의 주도권은 <해리 포터>의 J. K. 롤링이 쥐고 있다. 낱권과 세트, 한권짜리로 나온 <해리 포터> 시리즈는 모두 100대 베스트셀러 20위 안에 들어 약 40억 원의 판매고를 올렸다. 어린이책에 분류되지는 않지만 톨킨의 <반지대왕>과 현재 영국 어린이들에게 인기 최고인 재클린 윌슨의 모든 책들이 어린 독자의 책읽기에 훈풍을 불어넣고 있다.

10대를 겨냥한 소설부문 경쟁 치열해

한해 어린이책 시장의 흐름을 가늠할 수 있는 볼로냐 도서전에서도 영국 어린이책 출판인들은 치열한 다툼으로 다음 베스트셀러 사냥터를 누볐다. 그들의 주된 관심은 십대 소설에 몰려 어린이책 시장의 대기권에 새로운 기류가 형성될 조짐을 보였다. 유아들을 위한 그림책에서 좀더 큰 아이들을 위한 십대 소설 쪽으로 고기압 전선이 이동하고 있는 것. 판타지와 건설한 소설들이 흥미를 끄는 매력 장르였고, 역사 소설 히트를 찍치는 편집자들도 있다. 처음 8~10세 안팎의 어린이들에게 인기를 끈 '해리 포터' 열풍은 13~16세까지 독자층을 넓혀, '1318' 세대 독자를 위한 후속작이 간절히 필요한 시점이다.

호더출판사는 데이비드 리 스톤의 중세 판타지 3부작 6권의 저작권을 계약, 내년 6월에 선보일 예정이다. 옥스퍼드대출판부는 올해 휘트브레드상을 받은 필립 폴만을 잡았다. 푸핀은 델빈 버지스의 페이퍼백 저작권을 안테르센 프레스에서 따내, 오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출간할 예정이고, <아르테미스 새>의 작가 오엔 코울퍼의 <희망 사항>도 계약했다. 영화사들의 주목을 한눈에 받았던 아일랜드 작가 허비 브레넌의 <요정 전쟁>은 지난 11월 블룸스버리에 팔렸다. 그밖에 캐롤린 로랜스의 <로만 미스터리> 시리즈도 오리온사를 통해 10개국 이상에 팔려나갔다.

하지만 몇몇 어린이출판사들은 최근의 과열된 십대 소설 경쟁이 시장을 흐릴까 우려한

영국은 그림책에서 십대 소설로 눈 돌린다

과열된 십대 소설 경쟁 속에서도 고전에 대한 관심 꾸준해

김지원 | 출판칼럼니스트



<피터 래빗> 시리즈는 시대를 뛰어넘어 영국인들의 사랑을 받는 고전이다. 사진은 <피터 래빗> 시리즈의 날권들.

다. 판타지 시류에 편승하기보다는 잘 써진 정통 소설로 이동하는 것이 앞으로 어린이책 시장 흐름을 바꿔놓으리란 전망도 나온다.

맥밀런 어린이책 출판사는 더 이상 판타지 시리즈를 내지 않겠다는 방침이고, 한 중소출판사는 에이전트와 미국 출판사의 압력에도 판타지 목록을 빼버렸다.

자국 작가에 대한 자긍심 높아

한편 안정적인 독자층과 탄실한 작품성을 지닌 작가들에 대한 관심 또한 어느 때보다 높다. 위커는 루시 쿠신스, 안토니 브라운, 질 머피 등의 쟁쟁한 중견 작가들을 거느리고, 랜덤하우스는 재클린 윌슨과 바베트 콜을 새로 잡았다. 신간 소설의 부상은 호들갑스럽지만, 고전작가들의 작품에 새롭게 눈길을 돌리는 곳도 많다.

영국처럼 자국의 작가를 오래오래 변함없이 사랑하는 애국독자들도 없다. 1백년 전 출간된 작품이 갓 나온 신간보다 더 큰 위력을 발휘한다. 호더는 1950년대에 활약했던 에니드 블라이튼의 예전 작품에 관심을 보이고, 에그몬트는 <토마스와 기차> <위니 더 푸우>가 중요한 자산이다.

특히 올해는 전세계 어린이들의 친구인 '피터 래빗'이 탄생한 지 1백주년 되는 해다.

베아트릭스 포터가 글과 그림을 그렸던 랑카스터 지방의 작은 오두막은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그의 육필 스케치가 연중 갤러리에 전시되고 있다. <피터 래빗>

시리즈는 새롭게 변신

하며 세대를 거쳐 변치 않는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다.

자국 작가에 대한 사랑은 세계 각국으로 저작권 수출을 하면서 해가 지지 않는 영국 출판의 자긍심을 높여주고 있다. 여기에 큰 몫을 하고 있는 나라가 한국이다. 한 출판전문지에 선 영어권 도서에 대한 아시아의 높은 관심을 기사로 다루면서 한국의 저작권 경쟁에 주목했다. 옥스퍼드대출판부는 볼로냐에 출품한 목록 전부를 도서전이 열리기 전 이미 한국에 몽땅 팔았다. 베어푸트 북스는 한국 출판사들의 관심이 자사의 판매흐름까지 바꿨다고 한다. "한국인들은 어린이책이라면 물불 가리지 않고 산다. 우리가 출판한 모든 책은 전부 한국에 판다."

이제 우리도 자존심을 지킬 때가 됐다. 국내 작가에 대한 사랑은 생산의 최전선에 있는 출판인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